



### ■ 오 경 록

- 남덕에스피에프 대표
- 의학박사

### □ 태국산 계육에서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 검출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00년도 식육종의 강한 반코마이신내성 장구균(VRE)에 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태국산 계육에서 강한 VRE가 검출되었다. 이는 약제 내성균 대책의 일환으로 '96년부터 「식육종의 장구균의 반코마이신내성균에 관한 조사연구반」을 설치하여 식육종의 VRE오염 상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2000년도의 검색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입계육 185개 검사재료, 국내계육 101개 검사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로 태국산 계육(65개중 2개)에서 강한 VRE가 검출되었다.

프랑스산 8개 검사재료, 브라질산 18개 검사재료, 미국산 19개 검사재료, 중국산 75개 검사재료와 국내산 101개 검사재료의 계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수입돈육 86개 검사재료와 국내산 돈육 49개 검사재료에서

도 검출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VRE에 오염된 계육을 먹어도 건강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또한 적당히 가열(70℃, 1분)하면 VRE는 사멸하므로 금후 계육은 충분히 가열처리하여 요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더욱 후생노동성에서는 금후대책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①'97년과 '98년 조사결과 강한 VRE가 검출된 국가에 대해서는 VRE오염원인균 등의 조사내용을 전달하고 태국에서는 아보파신을 '99년 7월에 사용금지하였다. ②지금까지 태국정부는 VRE대책으로 수출계육에 대하여 VRE검색을 실시하여 양계장에서의 항생물질의 적정사용지도, 사료공장의 아보파신의 사용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2000년도의 조사결과에 따라 당년 8월 16일부터 태국정부에 대하여 VRE가 검출된 계육을 처리한 도계장에 닭을 공급하는 양계장의 조사와 VRE대책을 보다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다. (NK. 2001. 10)

## □ 중국산계육 수출정지 해제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6월 8일 이후 수입정지 조치를 한 중국산 가금육 등의 수입정지 조치의 일부해제에 대하여 8월 7일부로 발표하였다.

본 건은 6월초에 한국에서 중국산 오리고 기로부터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가 분리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6월 8일 이후 중국에서 선적한 가금육 등에 대하여 중국에서 가금인플루엔자의 청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을 일시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가축위생전문가에 의한 중국의 조사 결과 홍콩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된 닭이 생산된 중국의 농장의 청정성을 조사한 결과와 이들결과에 대한 일본 수의학회를 대표로 하는 연구자의 의견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일본에 수출되는 가금육 등을 통하여 가금인플루엔자가 일본에 침입할 위험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계육 및 칠면조육과 더불어 가금란에 대해서는 수입정지조치를 해제하여도 가금인플루엔자가 침입할 위험은 매우 적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산 계육, 칠면조육, 가금란에 대해서는 수입정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8월 7일부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한편 중국산의 상기 이외의 가금육과 살아 있는 가금(초생추) 등에 대해서는 가금류의 청정성의 신뢰도가 닭, 칠면조 정도로 높지 않고 1996년에 중국 국내의 거위에서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가 분리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입 정지조치의 해제는 추가적

인 위험감소처치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위험감소처치에 대해서는 중국정부와 협의하고 그때까지 수입정지조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더욱이 조심하기 위하여 수입정지조치의 해제로부터 3개월간은 중국산 가금육 등에 대하여 종전에 실시하고 있던 서류검사와 현물검사에 추가하여 일정비율로 축출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NK, 2001. 10)

## □ 무창계사의 살모넬라균 오염과 계사소독 및 사독백신의 효과

무창계사의 모니터링 검사에서 살모넬라엔트리티디스(SE)가 검출되었을 때 계군은 SE에 오염되어서 기도감염으로 오염이 확대되어 있었다.

오염된 농장은 출하 후에 소독을 실시하여도 완전한 청정화는 곤란하였고 계사소독과 SE사독백신의 접종을 실시하였을 때 일반적인 검사방법에서는 계사에서 SE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일반적인 검사방법에서도 SE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면역자기분리법에서는 검출되었기에 백신접종계군에서는 SE세균분리량이 일반적인 검사방법에서는 검출할 수 없는 한계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사는 백신접종 후에도 다른 혈청형의 살모넬라균이 축적 및 중복 오염되어 있었다.

계사내의 통로에 석회 산포는 어느 정도 청정화에 유효하지만 표면세균검사를 실시하는데 지장을 주게 되었다.(JSPD, 2001. 3)